

인내력의 시험

(과다 운동성 장애)

젊은 부부가 다섯 살배기 아들과 세 살배기 딸아이를 데리고 찾아왔다. 부모는 “이 아이들이 기어 다니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단 한 번도 인간다운 생활을 해본 적이 없다”고 하였다. 아이들의 엄마는 “밥숟가락 들고 식사해 보는 것이 소원”이라고도 하였다.

두 아이들이 하도 침대에서 떨어지는 바람에 침대를 없애고 바닥 생활을 한지가 두 해가 넘어간다는 이들 부부는 그 말을 듣고 보아서 그런지 볼수록 초췌하기 이를 데 없었다.

동네 할머니가 “나대는 아이들이 나중에는 공부도 더 잘 하고 효자가 된다”고 하여 이를 악물고 참아 왔는데, 이제는 한계에 도달하여, 도저히 어찌할 재간이 없어서 찾아왔노라고 하였다.

그도 그럴 것이 미술 학원에 보낸 큰 아이가 하다 못 해 크레파스를 들고 그리는 흉내라도 냈으면 좀 좋으려만는 아예 단 일분도 다소곳이 앉아 있질 못 하니 마침내는 참다못한 교사가 “너무 어려서 그런 것 같으니 내년에 보내면 어떨겠냐?”는 청원 반 험박 반의 전화를 수차례 해 오다가, 마침내는 “다른 아이들의 수업에 방해되니 나오지 말아 달라”는 최후의 통첩을 했다는 것이다. 답답한 노릇이었다.

그런 면담이 진행되는 동안 큰 아이는 진료 책상 위의 볼펜이며 차트며 진료에 쓰이는 해머 등을 두서없이 해집어 놓더니 만류하는 손길을 뿌리친 채 꼼지락거리며 아예 책상 뒤편으로 넘어와 컴퓨터의 키보드를 마구잡이로 두들겨 대는 것이었다.

결국 그 아이는 ‘열을 받을 대로 받은’ 아빠의 손아귀에 붙잡혀 우악스럽게 한 대 쥐어박히더니 커다란 울음을 터뜨리고는 진료실 밖으로 끌려 나갔다.

잠시 그 틈을 타서 작은아이가 전문의 명패를 땅바닥에 보기 좋게 패대기쳐 버렸다. 자개 조각이 튀었다.

“오, 마이 갓!”

과거에는 이런 아이들을 ‘두뇌 손상아’ 또는 미소 뇌 증후군(MBD, Minimal Brain Dysfunction Syndrome) 등으로 불렀다. 그 후로도 같은 질병 상태를 두고 여러 가지의 용어들이 사용되어 오다가 현재는 주의력 결핍-과다 행동 장애(ADHD)라는 복잡한 이름으로

부른다. 세계 보건기구의 국제 질병 분류는 과다 운동성 장애로 되어 있다.

전체적인 유병율은 일반 아동의 약 2-6%이며 남아에게 3-9배정도 많이 발생한다. 원인으로서는 주산기(출생이 임박한 때로부터 출생 직후까지)요인, 20세 미만의 산모, 임신 중 모성의 질병 상태, 과숙아 등이 있으며, 특히 임신 중 산모의 흡연이 깊이 관여된다고 알려져 있다. 또한 태어날 때 타고나는 '기질'이 까다로운 아이들의 약 70%가 이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고도 한다.

이 질환의 중요한 증상은 과다 행동, 주의력 산만, 충동적 행동 등이다. 물론 이런 행동들은 나이가 들면서 줄어가지만 끈기가 없거나 주의가 산만한 모습, 욱하는 충동은 오랫동안 남아서 성인기에까지 영향을 줄 수도 있다.

이런 증상을 가진 아이들의 문제점은 위의 예에서도 보듯 무지하게 얻어맞으면서 큰다는 것이다. 이런 아이들은 영유아기에 가장 많은 시간을 공유할 수밖에 없는 엄마를 마구 화나게 할 뿐 아니라, 그 화는 결국 바가지의 재료가 되어 궁극적으로 아빠에게까지 화를 미친다. 유전적 소인이 비교적 높아 만약 위의 예에서 보듯 두 아이 이상이 날뛰는 환경이 되면 부모들은 “거의 무아지경에 이르는 장 속 풍경”을 매일 경험하다시피 하게 된다.

치료는 교육적인 측면, 인지-행동적 측면, 약물 치료적인 측면이 상호 보완적으로 필요하다. 보통 증상이 경하면 병원에 찾아오는 일은 거의 없다고 보아 ‘어쩔 수 없이’ 병원을 찾는 아이들의 예에서 약물요법은 필수적일 수밖에 없다.

동시에 이런 아이들에게는 이차적으로 올 수 있는 우울 증상, 대인관계의 장애 등에 대한 지지적 요법이 필요하다. 또한 함께 생활할 수밖에 없는 부모들의 인내력의 문제와 일관성 있는 양육 태도 등도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다.